

자유사회는 중공이 행패부릴 곳이 아니다

명혜망 2008 년 1 월 8 일 소식에 의하면, 중공 주재 로스앤젤레스 령사관은 지난 달에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정치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앞으로 열릴 신당인 전 세계 화인 신년 만회를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파룬궁에 대하여 심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 편지는 카운티 정치위원회 행정집행관인 놀비의 분노를 자아냈다. 놀비는 최근 'LA 타임즈'에서 중국영사관의 압력에 대하여 공개적인 반격을 하였다. 놀비는 말하기를, "이것은 한 외국 정부가 미국의 민선관원(民選官員)에게 명령을 내려 우리에게 어느 단체에 대해 지지 혹은 지지하지 말 것, 인정 혹은 인정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의 편지는 오렌지카운티 정치위원회가 중공의 파룬궁 탄압에 협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다. 나는 절대로 접수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놀비의 성명은, 미국의 민선관원이 신당인 만회에 대한 중공 영사관의 간섭에 대해 다시 한번 높은 소리로 반격한 것이다. 얼마 전, 미국 뉴욕주 의원인 마이클 벤자민과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시(市)의 시장인 짐-너글(Jim Naugle)도 중공 령사관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공연을 보지 말고 명절 인사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내용이었다. 너글은 이 편지를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공을 규탄하였다. 너글은 여전히 만회에 표창을 보내왔으며, 아울러 가급적 더욱 많은 만회 프로그램을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신당인 TV가 창립된 이후로부터, 중공의 각종 탄압은 종래로 멈춘 적이 없었다. 2004 년 초에 유럽 위성을 협박하려던 시도가 실패한 후, 중공의 쫓점은 신당인 TV의 일년에 한 번씩 거행되는 성탄만회와 신년만회로 모아졌다. 중공 령사관의 편지는 대륙의 정치 선전과 마찬가지로, 다만 딱딱하게 신당인 TV와 파룬궁에 대한 거짓말을 중복하였을 뿐이었다. 험뜯는 어조는 거의 해마다 똑같았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신당인 공연은 해마다 미국 관원들로부터 수많은 표창을 받았으며, 중공 령사관은 허탕, 유감과 실망 만을 느끼게 되었다. 자유사회에서 거짓말은 오래갈 수 없으며, 란폭을 주문할 사람이 없다. 2007 년 신당인 TV가 로스앤젤레스 코닥극장에서 공연할 때 40 여 명의 관원들이 표창

축전 혹은 영예증서를 보내왔다. 마찬가지로 중공은 온갖 방법을 다하여 파룬궁을 비방, 탄압하였지만, 2003 년 로스앤젤레스 파룬궁 수련생들이 "파룬따파의 주(州)" 경축행사 때 한 달 사이에 40 개의 표창을 받았다. 한 국회의원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포장기 아주 잘된 파룬궁을 모욕하는 수많은 자료를 중공 령사관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우리들의 통상적인 방법은 휴지통에 던져 버리는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최근 몇 분의 미국 주류 민선관원의 반응으로부터 볼 때, 금후 중공 령사관의 편지는 더욱 심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들은 다만 휴지통에 버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법부문에 들어가 입안될 것이며, 중공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번 미국 관원의 중공 령사관에 대한 공개적인 반격은 다만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공개적으로 표명할 관원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중공이 간섭할수록 당하는 반격은 더욱 클 것이다. 중공이 미국에서 관원, 매체와 민중의 자유를 압제하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자유사회는 그것이 행패부릴 곳이 아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은 조만간에 징벌받을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중국 파룬궁학원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피난자격을 획득

중국 파룬궁학원 2 명이 한국에서 난민자격을 신고하여, 2008 년 1 월 16 일에 한국 서울 행정법원에서 법관이 정식으로 2004 년 5 월부터 신고한 32 명 중국 파룬궁학원중에서 2 명이 난민자격을 얻었다. 이는 아세아주에서 처음이다. 사법이 독립되어있는 한국 사법기구는 사실과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에서 여전히 파룬궁학원을 불법적으로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난민신청을 승낙한 것이다. 위 사진은 중국 파룬궁학원의 변호사 김남준(金南俊)이며 그는 아직도 승낙받지 않은 남은 원고(原告)인들도 응당 승소(勝訴)할 것이라고 표시 했다.





금년 1 월 14 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두번째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은 일어나서 신운예술단 전체 파룬궁학원들에게 박수를 치며 인사를 드렸다.

신기한 변화

파룬궁신운예술단이 주연한 신당인신년만회는 전세계 근 70 개 도시에서 공연되고 있다. 이 만회는 중화의 신전문화의 정화를 재현했고 자비롭고도 상서로운 에너지를 발산했는바 관중들은 <하나님이 준 레물>이라고 말했으며 중국인 관중들은 연출을 본후 마음과 몸이 신기한 변화를 가져왔다. 아래에 몇개 사실을 들겠다.

캐나다에 거주한 리씨 로인은 금년에 78 세이며 북경에서 왔다. 그는 기관지근육이 위축되어 아무것도 먹을수 없었고 포도탕 점적주사를 매일 맞아야 했다. 게다가 몇분에 한번씩 기침하고 화장실에 자주 들러야 했다. 그는 3 시간동안 연속 신운연출을 보았는데 한번도 기침하지 않고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를 <중궁은 파룬궁학원을 박해해서는 안됩니다.>고 하였다.

정녀사는 오타와에 있는 딸을 방문하러 북경에서 왔다. 1994 년에 심장병에 걸려 몸에 심장 박동기를 장착한 그는 평소에 소리만 들어도 민감하여 괴로워 견딜수가 없었다. 그런데 신운연출을 본후 생각밖에도 그에게 기적이 나타났다. 그는 <공연의 막이 열려서부터 연출이 끝날때 까지 나는 줄곧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마음은 몹시 감동되었고 몸은 매우 편안했습니다.>고 했다.



07 년신운만회: 부채춤

캐나다로 친척방문을 온 신녀사는 5 년전에 반신불수에 걸려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며 썰뚝거렸다. 그가 만회가 끝난후 층계를 올라갈때 두 다리를 가볍게 들어 올리면서 걸을수 있었다.그는 말하기를 <이 연출프로그램을 대륙의 중국사람들이 본다면 얼마나 좋을가?>고 념원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이름은 러명혜(呂明慧)(오른쪽 사진)라고 부르며 올해에 10 살이며 집은 할빈에 있습니다.

내가 어릴적에 어머니는 파룬궁을 련마했다고 감옥에 갇혔고 7 살때 아버지가 아침에 집에서 나간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



습니다. 나는 지금 할머니집에서 삽니다. 어느날, 나는 파룬궁전단지를 보았는데 아버지이름과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로교소에서 박해로 사망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십니까?

참고자료: 러명혜의 아버지는 러몽신(呂蒙新)이며 동북립업대학 강사였다. 그는 찌뽀런을 신앙한 리유로 불법적으로 3 년판결을 받았다. 2006 년 2 월 27 일, 그는 만가로교소에서 박해로 사망되었다. 러명혜의 어머니는 서문영(徐文英)이고 지금까지 감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소운해는
도주범이 아니다.

왕청현파룬궁학원 소운해(邵云海)는 2007 년 12 월 3 일, 왕청현 배추구진 신전촌 대대회계원에게 진상을 이야기하다가 배추구진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왕청현중안간수소에 갇혔다. 2007 년 12 월 17 일에 도주죄로 1 년 로동교양판결을 받았다.

소운해는 파룬궁을 수련하기전엔 중병환자로서 빛을 많이 졌다. 수련후 신체가 좋아지자 빛을 갇으려고 왕청현동광향목단촌에 가서 다른 사람이 세를 맡은 밭에다 무우를 심었다. 무우가 잘 자라는 것을 본 촌장은 나쁜 심보를 품고 그를 공안국에 고발하여 그 땅을 회수했다. 어느날, 공안국 경찰들이 그의 집에 뛰어들어 대법책을 몰수하고 소운해더러 공안국에 오라고 했다. 그는 할수없이 목단강촌을 떠나 외지에 가서 막일을 했다. 몇년동안 애써 번 돈으로 일부분 빛을 갹았다. 집도 없고 밭도 없는 그가 로교소에 갇혔으니 어떻게 빛을 갹을수 있겠는가? 소운해는 도주범이 아니다. 파룬궁수련은 죄가 없으니 즉시 그를 석방하라.

